

『花蛇集』에 나타난 시인의 초상

서재길*

I. 머리말

한국 근대시사에서 『花蛇集』만큼 강렬한 충격을 던져 주었던 시집은 드물 것이다. 이 시집이 지닌 의미는 무엇보다도 식민지 시기 우리 근대시가 도달한 정점이자 하나의 '심연'이라는 점에서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성리학의 계몽주의적 전통 속에서 형성되어 왔던 문학 개념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세계를 『화사집』이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새로운 세계를 서정주는 스스로 "생명의 탐구"¹⁾라 표현한 바 있는데, 이는 이후의 연구자들에 의해 "원시주의",²⁾ "동물적 상상력",³⁾ "반합리주의적 세계",⁴⁾ "소펜하우어적 맹목의지",⁵⁾ "디오니소스적 관능성"⁶⁾ 같은 개념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비이성적 세계에의 침잠에 대한 반성이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자기의식'의 측면은 『화사집』의 다른 한 축을 이룬다. 이는 일찍이 조연현에 의해 "원죄의식"⁷⁾이라는 말로 집약되었고, 이후 서정주 연구에서 "저주받

* 박사과정 수료

- 1) 서정주, 「현대조선시약사」 『조선명시선』 (은문사, 1949).
- 2) 김준오, 「원시주의와 자화」, 『가면의 해석학』 (이우출판사, 1985).
- 3) 김화영, 『미당 서정주의 시에 대하여』 (민음사, 1984).
- 4) 김재홍, 「미당 서정주」,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편, 『미당 연구』 (민음사, 1994).
- 5) 오세영, 『20세기 한국시 연구』 (새문사, 1991).
- 6) 김석준, 『서정주 초기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4).
- 7) 조연현, 「원죄의 형벌」, 『문학과 사상』 (세계문화사, 1949).

은 시인⁸⁾의 의식이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자의식”⁹⁾과 같은 개념을 통해 그 의미가 해명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화사집』의 세계가 맹목적인 에너지의 충동과 그 충동에 몰입하고 있는 주체의 자기의식이 빚어내는 갈등이 주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텍스트 내에서 추출되는 이러한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극복되는가 하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 본고는 이를 “麝香 薄荷의 뒤안길”을 서성거리던 청년 서정주가 가히 시의 “한 생애”¹⁰⁾라 불릴 수 있는 한국 현대시의 거장 시인 서정주로 변모되는 ‘원초적 선택’의 과정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본고는 『화사집』의 세계가 서정주가 시인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고찰함에 있어 사르트르(J. P. Sartre)가 제시한 바 있는 ‘실존적 정신분석’의 방법을 도입하여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¹¹⁾ 사르트르의 실존적 정신분석은 프로이트(/아들러) 류의 ‘경험적 정신분석’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면서 출발한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경험적 정신분석은 리비도(/권력 의지)를 모든 인간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궁극적 요인으로 바라봄으로써 결정론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 즉, “인간이란, 그 사람을 흘러가는 시간에만 묶어둠으로써 그에 대해 알 수 있는 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최후와 그의 투기(投企)들의 결말에 의해서 더욱 잘 규정되는, 하나의 현존재라는 사실”¹²⁾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리비도와 같은 원초적인 심리적 상태에 의해 지배되고

8) 황동규, 「탈의 완성과 해체」, 『현대문학』, 1981.9.

9) 최두석, 「서정주론」, 『미당연구』, 앞의 책.

10) 천이두, 「지옥과 열반」, 『미당 연구』, 앞의 책, 46면.

11) 프로이트의 ‘경험적 정신분석’과 바슐라르의 ‘사물들의 정신분석’의 방법을 통해 서정주 시 텍스트를 분석한 예로 오세영의 「화사」 분석의 글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오세영, 『한국현대시 분석적 읽기』 (고려대출판부, 1998), 305-332면 참조). 시 텍스트 자체를 분석하는 데에는 이러한 방법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으나, 시 세계의 변모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인의 의식적/무의식적 선택 행위들을 간과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J. P. Sartre, *Baudelaire*, 박익재 역, 『시인의 운명과 선택』 (문학과지성사, 1985), 41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자기가 자기를 선택하는 자유로운 인간이다.¹³⁾ 따라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의식적/무의식적, 중요한/사소한 행위들을 모아, 한 인간이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아나가기를 선택했는가를 밝히고(이해하고), 그것이 책임성 있는 선택인가, 책임성 없는 선택인가를 해독하며, 그것을 정착시키고, 그의 삶을 책임성-있는-삶/자기-기만의-삶으로 개념화하는 것이다.¹⁴⁾

이상에서 밝힌 사르트르의 실존적 정신분석의 방법으로 『화사집』에 구현된 시인의 초상을 해명함에 있어, 「自畫像」이 잘 보여주는 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며, 그 감정이 어떻게 “늪우치지 않을란다”와 같은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가 특히 주목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시인은 ‘부끄러움’의 감정을 “이마 위에 언친 詩의 이슬”로 물화(物化)시키는 것을 통해 자랑스럽게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화사집』에 구현된 시인의 초상을 분석하기 위해 이 글은 사르트르의 ‘대타존재’의 개념을 빌어 와 수치의 감정이 생기는 과정을 살피고(3장), 이 부끄러움을 주체적으로 극복하면서 시인으로서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고찰할 것이다(4장).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서정주가 시인으로서 자기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역동적 과정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신라정신과 설화의 세계로 나타나는 전통주의와 영원성의 추구로 표현되는 이후의 시 세계 역시 이러한 원초적 선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또한 밝혀지리라 믿는다.

II. 타자 존재의 개입과 수치를 통한 주체의 형성

『화사집』은 크게 「自畫像」 「花蛇」 「노래」 「地歸島詩」 「門」의 다섯 개의 소제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중 「화사」라는 소제목 아래에 실려 있는 「화

13) 김현, 「두 개의 실존적 정신분석」, 김치수·김현 편, 『사르트르의 문학적 세계』 (문학과지성사, 1984), 160-161면.

14) 위의 책, 166면. 사르트르는 유소년기의 ‘원초적 선택’을 중시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시인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문학청년기’까지를 포함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사, 「문둥이」, 「대낮」, 「麥夏」, 「입맞춤」, 「가시내」와 같은 작품과 「지귀도 시」 계열의 작품은 『화사집』 전체에서 관능적 요소가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작품들이다. 이 중에서 「화사」, 「문둥이」 같은 작품은 시적 화자가 꽃뱀이나 문둥이 같은 저주받은 존재에 대해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작품들에서 화자가 대상을 묘사하는 태도와 대상에 대한 반응은 중요한 의미를 띤다. 흥몰스러운 존재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꽃뱀이나 문둥이와 같은 존재는, 어떤 측면에서는 화자의 분신, 또는 융(C. G. Jung)이 말하는 ‘그림자(shadow)’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麝香 薄荷의 뒤안길이다. / 아름다운 배암……. / 얼마나 크단 슬픔으로 태여났기에, 저리도 징그러운 몸뚱아리나 // 꽃다님 같다. / 너의 할아버지가 이브를 꼬여대든 達辯의 헛바닥이 / 소리잃은채 / 벌롱그리는 붉은 아가리로 / 푸른 하늘이다. ……물어뜯어라. 원통허무리뜯어. // 다라나거라. 저놈의 대가리! // 돌팔매를 쏘면서, 쏘면서, 麝香 芳草人길 / 저놈의 뒤를 따르는 것은 / 우리 할아버지의 안해가 이브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 石油 먹은 듯…… 石油 먹은듯…… 가쁜 숨결이야 // 하늘에 꼬여 두틀까부다. 꽃다님보단도 아름다운 빛…… // 크레오파투라의 피먹은양 붉게 타오르는 고혼 입설이다…… 숨여라 배암. // 우리순네는 스블난 색시, 고양이같이 고혼 입설…… 숨여라! 배암. (「花蛇」 전문¹⁵⁾)

여기서 ‘꽃뱀’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는 모순된 것으로 드러난다. 이는 우선 뱀의 외양을 묘사함에 있어 “징그러운 몸뚱아리” / “꽃다님보단도 아름다운 빛”에서 잘 드러나듯 상반되는 어휘를 가져오고 있는 것에서 확인된다. “징그러운”이라는 형용사의 경우 뱀에 대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품고 있는 관념, 즉 흥몰스러움과 혐오감을 화자의 내면을 통하지 않고 그대로 시텍스트 속으로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말하자면 ‘타자의 언어’인 셈이다.¹⁶⁾ 반면,

15) 인용은 『미당 서정주 시집』(민음사, 1993)의 텍스트를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 <시인부락>과 『화사집』(남만서고, 1941, 대학사 영인본)의 텍스트를 참고했다. 지금까지의 서정주 연구는 텍스트 확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시중의 『전집』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도 일부 지적이 되겠지만 『전집』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본다. 서정주 초기 시의 서지적 사항과 텍스트 확정에 관해서는 최현식, 「서정주 초기시의 미적 특성연구」(연세대 석사논문, 1995)을 참조할 것.

16) 이러한 어휘 구사는 바흐친이 말하는 ‘다성성(polyglossia)’이나 로트만이 말하는

뱀에 대해 화자 스스로가 지니는 관점은 “아름다운 배암”, “꽃다님”, “꽃다님 보단도 아름다운 빛”, “고흔 입설”과 같이 긍정적인 가치판단을 내포하고 있는 어휘들에서 찾아질 수 있다. 여기에서 화자가 꽃뱀에 대해 대해 느끼는 가장 진솔한 태도가 드러나는 표현은 아무래도 “꽃다님보단도 아름다운 빛”이 아닐까 싶다.

꽃뱀에 대한 화자의 반응 역시 양가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다라나 거라”라고 외치는 행위와 “뒤를 따르는” 행위의 모순적인 반응에서 잘 드러난다.¹⁷⁾ 이러한 모순적 태도는 “초자아적인 세계로의 지향과 이드적인 지향, 달리 말하여 도덕적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지향과 존재론적 생물학적 인간으로서의 지향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삶의 조건에서 연유¹⁸⁾하는 것이다. 그런데 「화사」에서 꽃뱀의 “아름다운 빛”에 매혹되어 있던 화자가 “뿔팔매를 쏘”는 행위를 하는 데에는 대상을 향해 있던 화자의 의식 속에서의 변화가 숨어 있다. 즉, 꽃뱀이라는 지향적 대상을 향해 있던 전(前) 반성적 의식이 화자 자신을 지향성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반성적 층위에서 주체(자아) 개념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타자의 언어’에 불과했던 ‘정그라운’이라는 관념을 화자의 주체성 속에 승인하게끔 하는 ‘타자의 시선(눈초리, regard)’의 개입을 통해 인격적인 주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여기서 사르트르가 그의 이른바 현상학적 존재론에서 말하는 ‘수치의 삼각형’ 도식을 참조할 필요성을 느낀다.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의 3부 「대타존재」에서 밝힌 ‘수치의 삼각형’은 “나는, ‘타자’ 앞에서, ‘나’에 대해 수치를 느낀다¹⁹⁾”라는 말로 집약된다. 수치는 타자의 시선의 존재에 의해서 내가 대상화됨으로써 나타난다. 즉, 타자는 내 대상성의 필요조건이고 수치란 “타

‘이질적 단어와 같은 개념을 통해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장수익, 「서정주 초기 시의 기법과 주제의식 연구」, 『한국 근대소설사의 탐색』 (월인, 1999), 제 2 장 참조.

17) 이승훈은 이를 ‘심리적 갈등’과 ‘지향적 역동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승훈, 「서정주의 초기시에 나타난 미적 특성」, 『미당 연구』, 앞의 책, 459-463면 참조.

18) 오세영, 『한국 현대시 분석적 읽기』, 앞의 책, 319면 참조.

19) J. P. Sartre, 손우성 역, 『존재와 무 I』 (삼성출판사, 1991), 477면.

자 앞에서의 수치"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앞의 '나'가 지향적·전반성적 의식으로서 비인격적·익명적 존재의 의미를 지남에 비해, 뒤의 '나'는 반성적 의식을 통해 형성된 인격적 주체에 보다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타자는 예를 들어 「自畫像」에서 “외할아버지의 숱많은 머리털과 / 그 크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한다”라는 전언의 주체로서 나에게서 “천치”와 “죄인”의 표지를 읽고 가는 “어떤이”, 곧 세인(世人, Man)이라는 인격적 존재의 모습을 띠고 나타나기도 하지만, 「화사」의 “푸른 하늘”과 같이 비인격적 존재일 수도 있다.²⁰⁾ 신이라는 관념은 극한까지 밀어부쳐진 타자 개념²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타자로서의 신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원죄의식’을 갖게 하는 그 무엇이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²²⁾는 인신주의적 사상을 지닌 도스토예프스키적 인물의 “하느님을 맨 처음 생각해 낸 놈은 어떻게 좋지? 백양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놈을 말이야”²³⁾라는 구절은 ‘죄의식’이라는 것이 바로 ‘타자로서의 신 관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화사」의 화자가 “원통히 무려뜯어”라고 꽃뱀에게 주문하는 지향적 대상으로서의 “푸른 하늘”이란 나의 나뉘(“징그러운” 존재)에 개입하는 타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하늘에 대해 화자가 지니는 “원통”한 감정은, 사르트르가 그의 희곡 『닫힌 방』에서 타자의 시선을 의식해야만 하는 인간의 운명을 두고 “타자는 지옥이다”라고 절규할 때와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신과 같은 타자 존재가 없었더라면, 꽃뱀의 원통함이나 문둥이의 설움 같은 것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화사

20) 이런 점에서 볼 때 타자 존재는 경험적 사실성(facticité)이라기보다는 실재성(réalité)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서동욱, 「사르트르의 타자 이론」, 《현대비평과 이론》 17호 (1999년 봄·여름), 115면.

21) J. P. Sartre, 『존재와 무 I』, 앞의 책, 445면.

22) 이는 무신론을 대변하는 둘째 아들 이반의 사상으로 이는 그의 극시 「대심문관」의 핵심적인 주제를 이루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청년 서정주나 김동리가 깊이 침윤되었던 인신주의를 이반 카라마조프라는 캐릭터와의 관련 속에서 살펴볼 필요를 느낀다.

23) 도스토예프스키, 김학수 역,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상)』 (삼성출판사, 1990), 195면.

집』의 세계는 '신' 관념으로 대표되는 타자에 의해 '저주받은 운명'을 부여받은 주체를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화사집』에서 타자는 아래에서 보듯 화자의 "머릿 속暗夜에 등그란집을 짓고"서 심지어 낮에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엿보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저놈은 대체 무슨심술로 한밤중만 되면 / 차저와서는 꿈꿨고 있는 것일까 /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또 나와 나의 안해될사람에게도 / 분명히 저놈은 무슨불평을 품고있는 것이다. / 무엇보다도 나의詩를, 그다음에는 나의表情을, 호터진머리털 한가닥까지. …낮에도 저놈은 엿보고있었기에 / 멀리 멀리 幽暗의 그늘, 외임은 다만 수상한 呪符. / 피빛 저승의 무거운 물결이 그의 쪽지를다적시어도 / 감지 못하는 눈은 하늘로, 부흥…부흥… 부흥아 너는 / 오래전부터 내 머릿 속暗夜에 등그란집을 짓고 사렸다. (「부흥이」 전문, 밑줄·인용자, 이하 동일)

『화사집』에서 타자는 "푸른 하늘"(「화사」), "소란한 哄笑의 正午 天心"(「정오의 언덕에서」)와 같이 주로 '하늘'과 '대낮'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푸른 하늘은 원형 상상력에서 신이 주거하는 공간으로 이해된다는 점²⁵⁾에서 극대화된 타자 개념인 신의 관념과 일치하며, '대낮'이라는 시간 개념 역시 12시를 가리키는 시침의 방향에서 알 수 있듯 '하늘'과 흡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서 먹으면 지는듯이 죽는다는 / 붉은 꽃발새이 길이 있어 // 핫슈 먹은듯 취해 나자빠진 / 능구렁이같은 등어릿길로, / 남은 다라나며 나를 부르고…… // 강한 향기로 흐르는 코피 / 두손에 받으며 나는 쫓느니 // 밤처럼 고요한 끝론 대낮에 우리 둘이는 웬뎀이 달아…… (「대낮」 전문)

「대낮」은 원래 「正午」라는 제목으로 《시인부락》에 발표되었던 작품으로,²⁶⁾ 시적 화자가 지닌 지향성(에로티즘, 위반)과 제목(타자 존재, 금기) 사

24) 사르트르는 성경의 창세기를 그런 맥락에서 수치를 통해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이 바로 '수치'의 감정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는데, 사르트르는 여기에서 인간의 '자기기만'의 원형을 본다. 이런 관점에서 『화사』에 도입된 성서의 모티프를 다시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J. P. Sartre, 『존재와 무 I』, 앞의 책, 476면. 및 『존재와 무II』, 158면.

25) 오세영, 『한국 현대시 분석적 읽기』, 앞의 책, 315면.

26) 《시인부락》 1호, 10면.

이의 대립이 묘한 긴장감을 빚어내고 있는 작품이다. “따서 먹으면 자는 듯이 죽는다는 / 붉은 꽃밭새이 길”은 금기의 영역이지만, “남”이 “다라나며 나를 부르”는 유혹의 길이기도 하다. 『화사』에서 화자가 꽃뱀의 뒤를 따르는 것이 “石油 먹은 듯…… 가쁜 숨결” 때문이었듯 이 시의 화자 역시 “강한 향기로 흐르는 코피” 때문에 “죽음까지 파고드는 삶”²⁷⁾인 에로티즘의 세계로 몰입한다. 여기에서 “우리 둘이(……)웬몸이 달”게 되는 시간이 “밤처럼 고요한 끝는 대낮”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기가 강렬할수록 에로티즘의 위반 행위가 주는 강렬함은 더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했듯 인간으로 하여금 원죄의식을 갖게 하는 ‘신’이라는 관념은 극한까지 밀어부쳐진 타자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정주 초기시에 충만해 있는 관능적 열정은 바로 이 신이라는 초월적 타자의 시선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화사집』에서 제주도를 배경으로 씌어진 “지귀시편”을 비롯하여 에로티즘을 주제로 삼고 있는 여러 편의 시들은 금기의 위반을 통해서 신성을 체험하는 주체의 내면을 다루고 있다. 「입마춤», 「가시내», 「正午의 언덕에서», 「高乙那의 딸», 「雄鷄(上)», 「雄鷄(下)」 등의 작품들은 관능적 열정으로 충만한 육체를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피’의 맹목성과 생명의 원초적 에너지만이 들끓고 있다. 젊음의 들끓는 충동과 지향점을 찾아내지 못한 관능적 에너지의 덩어리들은 ‘피’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피’의 전율과 맹목성 속에 자신의 몸을 내맡기고 있다.

가시내두 가시내두 가시내두 가시내두 / 콩밭 속으로만 작구 다라나고 / 울타리는 막우 자빠트려 노코 / 오라고 오라고 오라고만 그러면 // 사랑 사랑의 石榴꽃
 낭기 낭기 / 허누바람 이랑 별이 무다 웃습네요 / 뜻פות한 山노루떼 언덕마다 한마
 덧식 / 개고리는 개고리와 머구리는 머구리와 // 구비 江물은 西大으로 흘러 나
 라…… // 땅에 긴 긴 입마춤은 오오 몸서리친 / 쭈니풀 지근지근 니빨이 히쳐어
 케 / 즘생스런 우습은 달드라 달드라 우름가치 / 달드라. (「입마춤, 전문)

보지마라 너 눈물어린 눈으로는…… / 소란한 咲笑의 正午 天心에 / 다붙은 내
 입설의 피물은 입맞춤과 / 無限 慾望의 그욕한 이 戰慄을…… // 아어찌 참을 것
 이나니 / 슬픈이는 모다 巴蜀으로 갔어도, / 웅영거리는 불벌의 때를 / 골과함께 나

27) G. Bataille, 조한경 역, 『에로티즘』 (민음사, 1995), 9면.

는 가슴으로 먹었노라. // 시약시야 나는 아름답구나 // 내 살결은 樹皮의 검은빛 / 黃金 太陽을 머리에 달고 // 沒藥 麝香의 薰薰한 이꽃자리 / 내 솟스슴의 춤추며 뛰어 가자 / 우습웃는 짐생, 짐생 속으로. (『正午의 언덕에서』 전문)

위의 시에서 화자는 “땅에 긴 긴 입마춤”이나 “우습웃는 짐생, 짐생 속으로”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동물성의 차원으로 전락함으로써 관능적인 세계에 탐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보들레르가 말하는 “사탄, 또는 동물성을 향한 기원”²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증생스런 우습”, “몸서리치”는 입맞춤, 그리고 “無限 慾望의 그윽한 戰慄”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맹목성은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행해지는 많은 금기 위반의 행위처럼, 단순한 관능적 도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성의 영역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가치 부재,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끝도 모를 심연과 혼돈의 상태에서 “피”의 부름에 몸을 맡기는 것은 인간 존재의 발가벗겨짐을 통해 절대적 타자, 초월적 타자인 신과 대면함으로써 인간이라는 실존의 극한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두려움과 회망이 교대로 그를 마비시키며, 마치 깊은 수렁가에 선 것처럼 조금만 움직여 어긋나도 그를 구제 불능의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영역”²⁹⁾으로서의 신성을 체험하는 일은 어쩌면 더 깊고 넓은 신성 속에 인간의 자아를 내맡기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금기가 항상 위반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진정한 신성이란 모독(위반)을 통해서만 체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위반으로서의 에로티즘은 일찍이 김동리가 말한 것처럼³⁰⁾ 종교적이며 윤리적인 것이다.

28)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의 내부에는 두 가지의 동시적 청원이 깃들여 있다. 그 하나는 신을 향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탄을 향한 것이다. 신 또는 정신성을 향한 기원은 상승하려는 욕망이고, 사탄 또는 동물성을 향한 기원은 하강의 즐거움이다.” Ch. Baudelaire, 『적나라한 나의 마음』, J. P. Sartre, Baudelaire, 앞의 책, 41-42면에서 재인용.

29) Roser Cailliois, 권은미 역, 『인간과 聖』 (문학동네, 1996), 21면.

30) “이와 같이 생명의 구경의 백척간두에 서서 그것의 은총을 향해 비약하느냐, 그 저주의 굴레를 목에 걸고 심연으로 내리박힐 것이냐 하는 데서 서씨(서정주-인용자의 「웃음웃는 짐승으로 짐승 속으로」가 나오고 오씨(오장환-인용자의 「할렐루야」의 역설 같은 것이 쏟아지는 것이다. 그것이 「짐승」의 길이던 「사탄」의 길이던 그 감정은 종교의 감정이요 그 광분은 윤리적 광분이다” 김동리, 「신세대의

위반을 통한 신성의 체험은 신의 은총을 향해 비약하거나 저주를 목에 걸고 심연으로 내리박히거나 하는 양자택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모험이다. 서정주 초기시가 높이 평가 받는 것은 이 시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의 모험 속에서 몸을 도사리지 않고 진실하게 대면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험에 자신을 내어맡기는 일은 자칫하면 존재 자체가 파열될 정도의 강렬한 긴장을 요구하기에 『문둥이』에서 보듯 “꽃처럼 붉은 우름”을 낳기도 한다.

해와 하늘 빛이 / 문둥이는 서러워 // 보리밭에 달 뜨면 / 애기 하나 먹고 //
꽃처럼 붉은 우름을 밤새 우렸다. (『문둥이』 전문)

이 시의 ‘문둥이’는 ‘화사’와 마찬가지로 시적 화자의 분신과 같은 존재이며, “해와 하늘빛”은 금기를 위반하는 시적 화자의 행위를 대상화하는 타자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문둥이가 서러워 하는 것은 “해와 하늘 빛” 그 자체가 아니다. 수치가 ‘타자’에 대한 수치가 아니라 타자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이듯이, 설움의 감정은 문둥이라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설움이고, 그 설움을 낳게 하는 타자가 “해와 하늘 빛”이다. 문둥이가 “애기 하나 먹”는 행위는 극단적으로 말해 人神주의적 입장에서는 부끄럽거나 죄의식을 느낄 만한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해와 하늘 빛”이라는 타자의 개입을 통해 문둥이가 애기를 먹는 행위는 ‘식인 행위’로 옹고되며 주체는 사물로 강등되어 버린다. “해와 하늘 빛”은 나의 세계 안에 있는 사물적 존재가 아니라, 나의 세계 자체를 불안하고 위태롭게 하는 의식 존재인 까닭이다. 더욱이, “보리 밭에 달 뜨”는 밤이라 할지라도 “어디서나 현전하는(omniprésent) 무한한 주관으로서의 신 관념”³¹⁾인 타자 존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문둥이는 서러워하는 것이다. 그 설움은 나의 자유가 타자의 개입에 의해 속박당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문둥이”라는 표지를 지닌 주체는 “해와 하늘 빛”으로 표현된 타자의 시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인간적 운명

정신, “문장” 2권 5호, 93면.

31) 서동욱, 『사르트르의 타자 이론』, 앞의 논문, 117면.

은 문둥이로 하여금 “꽃처럼 붉은 우름”을 울게 한다. 사르트르가 “우주의 내적 출혈”이라고 일컫는 “타자 존재의 필연성”에 의해 이제 주체와 타자 간의 자유를 둘러싼 투쟁이 펼쳐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투쟁은 「자화상」에서 “부끄럽다”와 “뉘우치지 않을란다” 사이의 긴장을 빚어낸다.

Ⅲ. ‘부끄러움’의 극복과 자기정체성의 확립

서정주의 기나긴 시적 편력에서 『花蛇集』의 첫머리에 놓인 「自畫像」은 그의 시 세계를 해명함에 있어 일찍부터 주목되었다. 「자화상」에 구현된 원초적 이미지들은, “서정주 시대”를 함께 호흡했던 당대 비평가 조연현의 「원죄의 형벌」이라는 글에 의해 간결하게 개념화되었는데, 이는 “굴욕과 유랑과 천사와 죄의 의식”이라는 단어로 집약된다. 서정주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평론이자, 많은 비평적 논의의 중심점이 되는 화두를 던졌던 이 글에서 조연현은 「자화상」에 시인의 “숙명적인 어떤 운명의 행로가 이미 예언되어 있다.”고 하면서, “굴욕과 유랑과 천사와 죄의 의식은 씨의 전 생애를 통해 버릴 수 없는 씨의 업고가 되어버린 것”³²⁾이라 말한다. 미당의 시적 편력에서 「자화상」이 지니는 의미를 조연현은 “원죄의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것인데, 이러한 원죄의식이 서정주가 평생을 깊어지고 가야할 인간으로서의 숙명이자 시인으로서의 과제라는 것이다.

애비는 종이였다. 밤이거피도 오지않았다. / 파뿌리같이 늙은할머니와 대추꽃이
한주 서 있을뿐이었다. / 어매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하나만 먹고 싶었다하였으
나…혹으로 바람직한 호롱불밑에 / 손톱이 감한 에미의 아들. / 甲午年이라든가 바
다에 나가서는 도라오지 않는다하는 外할아버지의 숯많은 머리털과 / 그 크다란눈
이 나는 닭었다한다. / 스물세햇동안 나를 키운건 八割이 바람이다. /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드라 / 어떤이는 내눈에서 죄인을 읽고가고 / 어떤이는 내입에
서 천치를 읽고가나 /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을란다. // 잘란히 티워오는 어느
아침에도 / 이마우에 언친 詩의 이슬에는 땀방울의 피가 언제가 서겨³³⁾ 있어 /
빛이거나 그늘이거나 헛바다 느러트린 / 병든 숯개만양 헐떡어리며 나는 왔다. (「

32) 조연현, 「원죄의 형벌」, 『미당 연구』, 앞의 책, 10면.

33) 『시전집』에는 “서겨”로 표기되었으나, 『화사집』에서는 “서겨”로 나와 있다.

自畫像, 전문)

화자는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이”, 곧 타자의 시선을 통해서 “죄인”과 “천치”라는 표지로 사물화된 자신을 발견한다. 스스로 “세상은 가도가도 부끄럽기만 하드라”라고 고백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 타자에 의해 사물화된 자신에게 덧붙여진 “죄인”과 “천치”라는 표지를 일면 수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화자가 느끼는 부끄러움이 1연의 앞부분에 서술되고 있는 화자의 어두운 과거나 가난한 가계사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서정주는 여러 종류의 글에서 자신이 미천한 신분에서 태어나 가난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표나게 고백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가난과 어둠이 화자에게 인간적 한계로 작용하거나 물질적 곤란을 가져올 수는 있어도, 그것이 직접 부끄러움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훗날 미당 자신이 「무등을 보며」에서 읊조렸듯 “가난이야 한날 檻樓에 지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 시에 나타난 ‘부끄러움’은 화자의 내면 속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타자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는 설명이 보다 더 적절할 것 같다. 즉, 부끄러움의 감정이 먼저 있고 나중에 부끄러워 해야 할 사실이 구성되는데, 나에게 붙여진 “죄인”과 “천치”라는 표지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는 지라르가 말한 것처럼 무차별화의 위기에 몰린 집단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폭력을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한 집단의 위기를 무마하려는 ‘희생양’ 제도의 전형적 박해구조에서 비롯된 “무구한 죄”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³⁴⁾

그러나, 이 시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은 가도가도 부끄럽기만 하드라”라는 수치 감정의 이면에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을란다”라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화자는 자신에게서 “죄인”과 “천치”를 읽어가는 타자의 시선에 의해 사물화됨으로써 수치를 느낀다. 만일 그

34) 전봉관의 논의는 이러한 관점에서 서정주 초기시를 바라보고 있다. 「서정주 초기시에 나타난 박해의 전형적 구조」, 문학사와 비평 연구회 편, 『한국 현대문학의 근대성 비판 <문학사와 비평> 7집』 (새미, 2000). 그러나 이 글에는 그러한 박해 체험을 시 창작의 자양분으로 삼아 자신의 시세계를 확립하는 과정에 대한 해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고가 주목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

수치를 자기의 주체성 속에서 승인하고 “뉘우치”게 된다면 나의 주체성은 타자에 의해 속박당하게 될 것이다.³⁵⁾ 그러나 ‘요나 콤플렉스³⁶⁾가 잘 보여주듯, 주체와 타자와의 관계는 한 쪽이 다른 한쪽을 완전히 소유하는 일방적인 관계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데에 인간 존재의 근원적 비극이 있다. 즉, 인간들 사이의 관계는 표상 활동을 통해 상대방을 자기 소유물로 삼고자 하는 지향적 의식들간의 투쟁적 관계이기에,³⁷⁾ 주체는 타자의 초월을 다시 초월하여 이를 대상화하거나 아니면 타자의 초월을 자기 안에 동화시키거나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다. “내가 타자에 대해서 주체성의 입장을 취하면 타자는 대상화되고 반대로 내가 타자를 주관성으로 취급하면 나의 대상으로 전락된다. 그러기에 타인에 대한 나의 관계는 변증법적이 아니라 차라리 순환적이다”³⁸⁾

따라서, 「화사」에서 “푸른 하늘”을 “원통히 무러뜯”는 즉자적인 반응과 비교할 때 「자화상」에서의 “뉘우치지 않을란다”라는 표현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준다. 이는 나를 사물화함으로써 나의 자유에 제한을 가해왔던 타자의 주체성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겠다는 실존적 결의, 곧 주체성의 자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주체와 타자의 관계 속에는 지금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언제건 주인이 될 수 있는 ‘역전가능성(réversibilité)’이 잠재해 있다. 니체(F. Nietzsche)는 그 속에 원한감정(ressentiment)이 숨어 있다고 했거니와, “뉘우치진 않을란다”라는 결의 속에는 자신을 사물화했던 타

35) 나의 주체성을 타자의 주체성과 동일시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자기의 주체성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이러한 태도를 사르트르는 ‘메저키즘’이라고 한다. J. P. Sartre, 『존재와 무II』, 앞의 책, 114-115면 참조.

36) 고래 뱃속에 있는 요나가 살려면 고래가 죽을 것이요, 고래가 살자면 요나가 죽을 것이다. 그렇다고 요나를 토해 버리면 고래는 벌써 요나를 자기 안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며, 요나와 고래의 존재 관계는 단절되고 만다. 이러한 인간의 운명적인 존재여건을 요나 콤플렉스라 한다. 신오현, 『자유와 비극 - 사르트르의 인간 존재론』 (문학과 지성사, 1985), 230면 참조.

37) 헤겔의 저 유명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사르트르는 이를 ‘변증법’으로 보지 않고 ‘순환적인 것’으로 보았다. J. P. Sartre, 앞의 책, 103-105면.

38) J. P. Sartre, 위의 책.

자를 다시 주체의 지평 속으로 대상화시킴으로써 노예로 만들어 버리려는 의지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이제 자신에게 붙은 “죄인”과 “천치”라는 표지를 “뉘우치지 않”는 화자는 오히려 그러한 표지를 자양분으로 삼아 “시의 이슬”로 응결시킴으로써 자랑스럽게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하려 한다. 그것은 “뗏방울의 피가 언제나 서겨 있”는 “시의 이슬”이 “찰란히 티워오는 어느 아침”의 “이마위에” 얹혀 있다는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다. 화자가 지향하고 있던 ‘피’의 관능적 세계는 여전히 유지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표지처럼 자신의 이마위에서 시의 이슬로 빛나게 된다. 그렇다면 “뗏방울의 피가 언제나 서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이슬”이 어떻게 맺어지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수치 감정이 “시의 이슬”로 변모하는 이러한 역전과정에는 타자를 애써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대타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자기기만’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잘 보여 주는 작품이 「葉書」와 「水帶洞詩」이다.

머리를 상고로 꺾고 나니 / 어느詩人과도 낮이 다르다. / 팽팽한 니빨로 우서보
니 하늘이 좋다. / 손톱이 龜甲처럼 두터워가는것이 기쁘구나. // 속작새같은 계집
의 이야기는, 벗아 / 인제 죽거든 저승에서나 하자. / 목아지가 가느다란 李太白이
처럼 / 우리는 어찌서 兩班이어야 했느냐. // 포올·베르레노의 달밤이라도 / 龜
童이와 가치 나는 새끼를 낳다. / 巴蜀의 우름소리가 그래도 들리거든 / 부끄러운
귀를 꺾어버리마 (「葉書 - 동리에게」 전문)

흰 무명옷 가라앉고 난 마음 / 싸늘한 돌담에 기대어 서면 / 사뭇 스스러워지는
생각, 高句麗에 사는듯 / 아스럼 눈감았던 내 녀의 시골 / 별 생겨나듯 도라오는
사투리 // 등잔불 벌써 키어지는데... / 오랫동안 나는 잘못 사렸구나. / 사알·보
오드레르처럼 설스고 괴로운 서울女子를 / 아조 아조 인제는 잊어버려. // 仙旺山
그늘 水帶洞 十四번지 / 長水江. 뱀발에 소금 구어먹든 / 曾離하라버짓적 흠으로
지은집 / 오매는 남보단 조개를 잘줍고 / 아버지는 동침 서문말 졌느니 // 여귀는
바로 十年전 옛날 / 초록 저고리 입었던 금女, 꽃각시 비너하야 웃든 三月의 / 금
女, 나와 둘이 있든곳. // 머잖아 봄은 다시 오리니 / 금女동생을 나는 얻으리 /
눈섭이 검은 금女 동생, 얻어선 새로 水帶洞 살리. (「水帶洞詩」 전문)

두 작품은 초기의 관능적인 세계가 이후의 전통과 영원성의 세계로 이어지는 도정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작품이다. 위의 시에서 “머리를 상고로

깍”는 행위나 “흰 무명옷 가라입”는 행위는 “낮이 다르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탈(mask)을 바꿔쓰는 것을 통해 페르조나(persona)를 인위적으로 변모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일종의 비약, 혹은 투기(投企)를 통해서 존재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려는 시도로서, “숫작새같은 계집”, “사알·보오드레·르처럼 설시고 괴로운 서울女子”를 잊어버리기 위함임이 쉽게 추측된다. 즉, 이들은 화자가 사랑을 얻고자 했으나 실패했던 타자였던 것이다.³⁹⁾ 「엽서」와 「수대동시」의 화자는 이러한 사랑의 실패로부터 자신의 주체성을 상처입히지 않고 보존하려 하는데, 이는 자기 비하나 무관심을 가장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우선, 자기비하의 행위는 이미 「애비는 좋이었다」와 같은 표현에서도 나타난 바 있거니와, 다음과 같은 서정주의 자전적 고백에서도 쉽게 감지된다.

내가 만일 舊韓國時節에 태어났다하여도 參奉한등 하였을런지도 疑問인 나는 본
판이상놈의子息이었던 것이다 / 벗들가운데는 나는 혼이 「아라비아土人」이라는別名
으로 불오는 사람이었다. 아라비아는 나의 知識밖이라 알수없으나, 그 「土人」이라
는 말이 나는 싫지않다. 내가 무슨 李太白이 아들이란 말이냐! 내게서는 必然 그
소금굽은 「질마재」의 낫놓고 그字도 그릴줄도모르는 내一家親戚의 내음새가 날 것
이다. 종이 한장 부치지않은 癖房과 癖 바람벽의 내음새가 날 것이다.⁴⁰⁾

「엽서」에서 “목아지가 가느다란 李太白이 처럼 / 우리는 어찌서 兩班이어야 했드냐”라는 화자의 절규는 “나는 본판이상놈의子息”이라는 말의 반어적 표현으로 읽힌다. 스스로를 비하하는 이러한 표명 속에는 대타 존재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사물처럼 단단한 하나의 실체로 고정시킴으로써 더 이상 타자의 시선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러한 자기비

39) 사르트르에 따르면, 사랑은 타자의 주체성을 나의 주체성의 지평 위에 복속시키는 행위, 즉 내가 나의 자유를 행사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자유를 산 채로 나의 자유 속에 동화시키려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의 시도는 근원적으로 실패하게끔 운명지워져 있는데, 이러한 실패로부터 무관심, 성적 욕망, 증오, 사디즘과 같은 형태의 인간관계가 나타난다고 한다. R. Kerney, 임현규 외 역, 『현대 유럽철학의 흐름』 (한울, 1992), 80-81면. 및 J. P. Sartre, 『존재와 무II』, 앞의 책, 116-162면 참조.

40) 서정주, 「속 나의 방랑기」, 《인문평론》, 1940. 4., 60면.

하를 통해 “타자가 나의 존재 속에서 나를 엄습하는 데 쓰는 인식은 타자의 ‘의식’ 속에서의 나에 관한 단순한 심상으로 하락한다.”⁴¹⁾ 즉, 타자의 자유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쟁취하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화자는 스스로를 사물화 시킴으로서 주체와 타자 사이의 지향적 의식간의 투쟁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려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무관심의 태도는 “포울·베르레-느의 달밤”에 “福童이와 가치(……)새끼를 꼬”는 행위나 “눈섭이 검은 금녀 동생, 언어선 새로 水帶洞 살리”라고 말하는 것에서 추측할 수 있다. 여기서 “복동이”나 “금녀”의 세계는 “숫작새 같은 계집”, “서울女子”의 세계와 철저히 대립되는 세계이다. 화자가 “포울·베르레-느”, “목아지가 가느다란 李太白”, 그리고 “샤알·보오드레-르”의 세계를 기웃거린 것은 “서울”로 표상되는 타자의 자유, 즉 사랑을 얻기 위함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자기만을 사랑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을 매력적으로 표현하면서 상대방을 유혹할 필요성이 있는데, 화자에게는 보들레르, 베를렌느, 이태백으로 대변되는 시의 세계가 이를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시인과 자신이 근원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해서 “서울(여자)”의 사랑을 획득하는 데 실패한 존재는 “금녀 동생”을 얻어 수대동에서 “복동이와 같이(…) 새끼를 꼬”며 살려고 한다. 이는 “포울·베르레-느의 달밤”과 “서울 여자”라는 타자에 대한 무관심 혹은 무시를 가장함으로써 가능해짐은 물론이다.

자기비하나 무관심이라는 형태로 자신의 주체성에 개입해 오는 타자를 부정함으로써 화자는 이제 “어느 詩人과도 닮지 다르다”라는 인식을 얻는다. 뿐만 아니라 「화사」, 「문동이」에서 그토록 저주했던 ‘하늘’을 긍정하게 된다. “하늘이 좋다”라는 타자 존재의 승인 속에는 그러나 “巴蜀의 우름소리가 그래도 들리거든 / 부끄러운 귀를 꺾어버리마”나 “흰 무명옷 가라입고 난 마음 / 싸늘한 돌담에 기대어 서면 / 사뭇 숫스러워지는 생각”에서 볼 수 있듯 “부끄러운” 느낌과 “숫스러워지는 생각”이 수반된다. 이 느낌은 대타 존재를 부정하는 자기기만⁴²⁾의 과정이 만들어 낸 솔직한 고백이자, 시의 진실

41) J. P. Sartre, 『존재와 무 I』, 앞의 책, 476면. 사르트르는 이를 “암암리의 양해”라 표현하고 있다.

성이다.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의 주인공이 무진을 떠나면서 느꼈던 감정이 “부끄러움”이었던, 위 시의 화자 역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자기기만 속에서 어떤 “부끄러움”, 혹은 “스스러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⁴³⁾

만일, 위의 시의 화자가 “포울·베르레-느의 달밤”에 “巴蜀의 우름소리”를 듣는다면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오는 실존적 결단에의 요구를 듣게 될 것이다. “귀를 꺾어버리”지 않고 그 “우름소리”에 귀기울일 때, 즉 자기기만적 삶에서 벗어나 본래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시인은 「바다」와 같은 심연⁴⁴⁾과 마주치게 된다.

귀기우려도 있는것은 역시 바다와 나뉘. / 밀려왔다 밀려가는 무수한 물결우에
무수한 밤이 往來하나 / 길은 恒時 어데나 있고, 길은 결국 아무데도 없다. // 아
만딜볼만한 등불 하나도 없이 / 우름에 젖은 얼굴을 온전한 어둠속에 숨기어가지
고... 너는, / 無言의 海心に 홀로 타오르는 / 한낱 꽃같은 心臟으로 沈沒하라. //
아 스스로히 푸르른 情熱에 넘쳐 / 둥그란 하늘을 이고 웅얼거리는 바다, / 바다
의깊이우에 / 내구멍 풀린 피리를 불고... 청년아. / 애비를 잊어버려 / 에미를 잊
어버려 / 兄弟와 親戚과 동모를 잊어버려, / 마지막 네 계집을 잊어버려, // 아라
스카로 가라 아니 아라비아로 가라 / 아니 아메리카로 가라 아니 아프리카로 / 가
라 아니 沈沒하라. 沈沒하라. 沈沒하라! // 오 어지러운 心臟의 무계우에 풀뉘처럼
훗날리는 머리칼을 달고 / 이리도 괴로운나는 어찌 끝날내 바다에 그득해야 하는
가. / 눈뜨라. 사랑하는 눈을뜨라... 청년아, / 산 바다의 어느 東西南北으로도 /
밤과 피에젖은 國土가있다. (「바다」 전문)

-
- 42) 자기기만(불성실)이란 사물처럼 단단한 실체성을 영원히 마련해 놓고 그 속에 안주하려는 유혹이자 대자적 입장을 버리고 스스로 즉자화하려는 술책으로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는 자세이다. 즉, 인간은 그 무엇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그 무엇으로 되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망각하는 것이다. 정명환, 「J. P. 사르트르」, 김화영 편, 『사르트르』(고려대출판부, 1990), 205면.
- 43) 신오현, 앞의 책, 239면. 사르트르에 따르면 타자의 존재를 대하는 나의 태도에 일관성을 견지하려 할 때 나는 필연적으로 자기기만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 구조 자체가 타자에 대한 나의 태도에 일관성을 견지할 수 없도록 자기 모순에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 44) 김윤식은 그 심연을 “서사무가의 세계”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이 세계가 이른바 문협정통과 문학의 한 축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윤식, 「문협정통과의 정신사적 소묘 - 서정주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사상연구2』(아세아문화사, 1994), 227-228면 참조.

1920년대 초기 퇴폐적 낭만시들이 변죽만 울리다 멈추고 돌아서버린 지점에 서서 시인은 “한낫 꽃같은 心臟으로 沈沒하라”는 바다의 절규를 듣는다. 이 절규는 실상 “애비”와 “에미”, “兄弟와 親戚과 동모”, 그리고 마지막 “계집”까지도 절연함으로써 마주칠 수 있었던 화자의 내면 깊숙한 곳의 부름이다. 그리고 이 부름은 1920년대 김소월이 그의 「悅樂」이나 「무덤」에서 마주쳤던 소리이기도 하다.

어둡게갸게 목메인하늘 / 꿈의품속으로서 구러나오는 / 애달피잠안오는 幽靈의
눈결. / 그림자점은 개버드나무에 / 쏘다치나리는 비의줄기는 / 흠뻑거뻑기는 / 呪
文의 소리. // 식겁은머리채 푸러헛치고 / 아우성하면서 가시는씨님. / 헐버스버레
들은 곱트릴때, / 黑血의 바다. 枯木洞窟. / 啄木鳥의 / 쏘아리는소리, 쏘아리는
소리. (「悅樂」 전문)

그누가 나를헤내는 부르는소리 / 붉으스럼한언덕, 여긔저긔 / 몰부덕이도 움죽이
며, 달빛해, / 소리만남은노래 서리워영겨라, 옛조상들의기록을 무더둔그곳! / 나는
두루찾노라, 그곳에서 / 형적업는노래 흘러퍼져, / 그림자가득한언덕으로 여긔저긔,
/ 그누구가 나를헤내는 부르는소리 / 부르는소리, 부르는소리, / 내넉슬잡아쓰러헤
내는 부르는소리. (「무덤」 전문)

김소월이 이 ‘소리’를 귀기울임으로써 「초혼」과 같은 세계와 마주칠 수 있었다면, 서정주는 「바다」가 보여주는 심연이 너무나도 아득했었던 탓인지 이 심연으로부터 벗어나려 한다. 김동리의 표현을 빌면 이 심연 속을 헤매는 서정주를 바라보는 것이 “진실로 눈물 겨운 일”⁴⁵⁾이 아닐 수 없었는데, 오دت세우스가 사이렌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밀랍으로 자신의 귀를 막은 것이 자기 보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듯,⁴⁶⁾ 서정주는 자기기만을 통해 이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보들레르를 두고 사르트르가 “그 원초적 선택은 원초적으로 자기기만에서 빚어진 것이다”⁴⁷⁾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

45) 김윤식, 앞의 책, 215면에서 인용. 김윤식은 이 구절을 김동리의 「자전기」, (『김동리대표작선집』, 삼성출판사, 1967)에서 인용한 것 같은데, 필자는 찾지 못하였다.

46) M. Horkheimer & T. W. Adorno, 김유동 외 역, 『계몽의 변증법』 (문예출판사, 1995), 96-97면 참조.

47) J. P. Sartre, *Baudelaire*, 앞의 책, 87면.

의 자기기만을 통해 시인이 도달한 곳은 “高句麗에 사는듯 / 아스럼 눈감었
든 내 녀의 시골 / 별 생겨나듯 도라오는 사투리”의 세계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이 자기만을 사랑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
여 자신을 매력적으로 표현하면서 상대방을 필요성에 직면한다. 즉, 사랑하
는 사람은 상대방의 자유를 자유로 소유하려고 시도한다. 그런데, 타자에게
자기를 표현하여 타자의 의식(자유)를 생포하려는 것이 바로 언어의 원형이
다.⁴⁸⁾ 서정주의 “사투리”는 바로 그런 언어를 지향하고 있다. 이제 시인은
“어느 시인과도 낮이다르다”라는 표현을 통해 이태백, 보들레르, 베를렌느
같은 시인과 구별되는 자신의 시인으로서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찾은 듯하
다. “고구려”, “내 녀의 시골”, “사투리”라는 표현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바로
신화와 전통이 언어를 매개로 하여 결합된 세계이다. 『화사집』 이후의 서정
주의 시세계는 바로 이 “사투리”를 통해 “영원”이라는 화두를 탐색하는 것으
로 이어진다.⁴⁹⁾ “내 녀의 시골”과 “사투리”에 도달함으로써 시인 서정주는
“부족방언의 연금술사”라는 화려한 찬사와 함께 “시의 한 생애”로 한국 근대
시사에 우뚝 솟은 산맥이 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바다」와 같은 심연으로
부터 멀어지게 된다. 『화사집』 이후의 서정주 시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바
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는 한국 근대시의 가장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서정주의 초기 시세계를 특히 첫 시집 『화사집』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
구의 대상을 한정된 것은 『화사집』의 세계가 이전의 문학적 전통의 맥락에
서 볼 때 가장 새롭고도 낯선 감수성을 보여 주었고, 현대시에 끼친 영향력
이 크다는 점에서 한국 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는 꼭 거쳐야 하는
하나의 심연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본고가 의도한 것은 “시의 한 생애”

48) 신오현, 앞의 책, 233면.

49) 미당의 후기 시세계를 신범순은 “질기고 부드럽게 걸러진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신범순, 『한국현대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신구문화사, 1998).

라는 극찬을 받고 있는 시인 서정주의 자기 정체성의 확립 과정 곧 주체 정립의 과정을 해명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 사르트르가 말한 “실존적 정신분석”의 개념을 그의 존재론을 중심으로 빌어왔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밝혀진 것은 다음과 같다.

『화사집』은 무엇보다도 “타자”에 의해 “부끄러움”이라는 자기 인식을 통해 인격적 자아 개념으로서의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역동적으로 잘 보여 준다. 여기에서 “타자”는 시적 화자를 둘러싼 인간관계에서부터 화자의 의식을 지배하는 의식의 “타자”, 그리고 초월적 타자인 “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타자에 의해 세계 속에 출현하게 되는 주체는 우선 “부끄러움”으로 자기를 인식한다. 그 부끄러움의 감정은 「자화상」에서 잘 볼 수 있듯 “시의 이술”을 만들어내는 자양분으로서 기능하지만 이를 “시의 이술”로 전 화시키는 과정 속에는 사르트르가 인간 존재의 근원적 실존의 방식이라 말한 “자기기만”이 숨어 있다. 그 자기 기만은 자신의 내부 속에서 들려 오는 타자의 목소리에 대해 무관심을 가장하거나 혹은 자기 비하를 통해 주체를 사물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기만의 과정은 시인으로 하여금 “사투리”라는 메타포가 상징하는 바 전통과 언어가 결합되는 독자적인 시세계를 발견하게 해 줌으로써 시인 서정주의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사투리”의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후의 시세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터인데, 언어의 기교를 중시하게 되면 중, 후기시를 높이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정신의 치열함을 문제삼는다면 초기시로부터 후기시로의 변화는 긴장력의 상실과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서정주, 『화사집』, 남만서고, 1941.
서정주, 『미당 서정주 시전집』, 민음사, 1993.
『인문평론』, 『시인부락』 등

2. 연구 논저

- 김동리, 「신세대의 정신」, 『문장』 2권 5호, 1940. 5.
김동리, 「자전기」, 『김동리대표작선집』, 삼성출판사, 1967.
김석준, 『서정주 초기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4.
김윤식, 「문협정통과의 정신사적 소묘 - 서정주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사상연구2』, 아세아문화사, 1994.
김재홍, 「미당 서정주」,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편, 『미당 연구』, 민음사, 1994.
김준오, 「원시주의와 자학」, 『가면의 해석학』, 이우출판사, 1985.
김현, 「두 개의 실존적 정신분석」, 김치수·김현 편, 『사르트르의 문학적 세계』, 문학과지성사, 1984.
김화영, 『미당 서정주의 시에 대하여』, 민음사, 1984.
서동욱, 「사르트르의 타자 이론」, 『현대비평과 이론』 17호, 1999.
신범순, 『한국현대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 신구문화사, 1998.
신오현, 『자유와 비극 - 사르트르의 인간 존재론』, 문학과 지성사, 1985.
오세영, 『20세기 한국시 연구』, 새문사, 1991.
_____, 『한국현대시 분석적 읽기』, 고려대출판부, 1998.
이승훈, 「서정주의 초기시에 나타난 미적 특성」,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편, 『미당 연구』, 민음사, 1994.
장수익, 「서정주 초기 시의 기법과 주제의식 연구」, 『한국 근대소설사의 탐색』, 월인, 1999.
전봉관, 「서정주 초기시에 나타난 박해의 전형적 구조」, 문학과사 비평 연구회 편, 『한국 현대문학의 근대성 비판 (『문학과사 비평』 7집)』, 새미, 2000.
정명환, 「J. P. 사르트르」, 김화영 편, 『사르트르』, 고려대출판부, 1990.
조연현, 「원죄의 형벌」,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편, 『미당 연구』, 민음사, 1994.
천이두, 「지옥과 열반」,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편, 『미당 연구』, 민음사, 1994.

- 최두석, 「서정주론」,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편, 『미당 연구』, 민음사, 1994.
- 최현식, 「서정주 초기시의 미적 특성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5.
- 황동규, 「탈의 완성과 해체」, 『현대문학』, 1981.9.
- 도스토예프스키, 김학수 역,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상)』, 삼성출판사, 1990.
- Bataille, G., 조한경 역, 『에로티즘』, 민음사, 1995.
- Caillois, R., 권은미 역, 『인간과 쫓』, 문학동네, 1996.
- Horkheimer, M. & T. W. Adorno, 김유동 외 역, 『계몽의 변증법』, 문예출판사, 1995.
- Kerney, R., 임현규 외 역, 『현대 유럽철학의 흐름』, 한울, 1992.
- Sartre, J. P., Baudelaire, 박익재 역, 『시인의 운명과 선택』, 문학과지성사, 1985.
- _____, 손우성 역, 『존재와 무 I』, 삼성출판사, 1991.